

「남부」와 아르헨티나 현실에 대한 보르헤스의 인식

우석균

서울대학교

우석균(2021), 「남부」와 아르헨티나 현실에 대한 보르헤스의 인식,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2(3), 101-121.

초록 이 글은 보르헤스가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작가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작가라는 점을 입증할 목적으로 「남부」(1953)를 분석한다. 이 단편을 선택한 이유는 보르헤스 개인의 삶과 문학 여정이 진하게 녹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역사, 정치, 지리적 상상력, 지성사의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하고 복합적인 해석 지평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보르헤스의 삶과 문학적 전사(前史)가 「남부」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다루고, III장에서는 「남부」와 페론주의의 관계를 주로 추적하고, IV장에서는 프런티어 지대로서의 남부가 아르헨티나 역사와 이 단편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한다. 「남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페론주의에 대한 보르헤스의 분노와 절망이다. 19 세기에 철권통치를 한 후안 마누엘 데 로사스와 아르헨티나 지성사에서 오늘날까지도 되풀이되고 있는 문명과 야만의 대립구도를 정립한 도밍고 F. 사르미엔토에 대한 시각까지 바뀔 정도로 그의 분노와 절망이 컸다. 이례적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텍스트를 다수 썼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압도적인 현실에서 보르헤스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별로 없어서 「남부」의 주인공 후안 달만은 이기지도 못할 결투에 나선다. 이는 문명과 야만의 대립구도에서 문명이 패하는 것을 암시한다. 과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변두리나 수르 지역에 대한 신화적 형상화의 연장선상에서 남부 프런티어 지대로 그 작업을 확대하는 매력도 지닌 단편이지만, 신화화 작업의 핵심 장치인 과거로의 여행 역시 19세기 프런티어 지대의 야만을 확인하는 일이었을 뿐이다.

핵심어 보르헤스, 「남부」, 아르헨티나, 페론주의, 프런티어

I. 들어가면서

보르헤스에게는 으레 고정관념이 따라다닌다. 그가 세속을 초월한 인류의 스승 같은 존재이고, 아르헨티나 작가라기보다 보편적인 작가라는 고정관념이다. 이는 아무래도 보르헤스가 『픽션들 *Ficciones*』(1944)과 『알레프 *Aleph*』(1949)의 형이상학적인 단편들로 명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대작가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아르헨티나라는 일개 국가의 작가로 보기보다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 국경과 인종과 세속을 초월한 전 인류의 자산으로 여기는 일종의 보르헤스 신화가 탄생하였다. 가령, 예일대학 강연에서는 보르헤스가 너무도 고고하게 여겨졌는지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황당한 질문을 하는 청중이 있었고(Rodríguez Monegal 1987, 409), 아르헨티나에서조차 보르헤스의 지인인 네스토르 이바라(Néstor Ibarra)는 그를 서구에 소개할 때 아예 보편적 작가로 홍보하는 일이 있었다(Olea Franco 1993, 15).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양상의 보르헤스 신화가 존재한다. 필자 역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4년 아르헨티나에서 베아트리스 사를로(Beatriz Sarlo)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의 균형 감각을 찾을 수 있었다. 필자에게는 인생 강의라고 할 만큼 대단했던 그 강의에서 사를로는 보르헤스가 아르헨티나의 특수한 근대성 맥락, 문화적·문학적 맥락의 산물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국내에 소개할 만한 시각이라고 여겨졌고, 보르헤스 탄생 100주년인 1999년에 여러 기회가 있어 몇 편의 글을 썼다. 첫 시집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열기 *Fervor de Buenos Aires*』(1923) 분석을 통해(우석균 1999a) 아르헨티나 근대성의 맥락에 보르헤스를 위치시키는 것이 첫 작업이었다. 계간지 『세계의 문학』에 「흑백 사진 속에 갇힌 보르헤스의 천연색 욕망」에서는, 신화 속의 보르헤스가 아니라 인간 보르헤스의 내면적 욕망과 갈등을 소개했다(우석균 1999b). 전해 들은 말이지만, 모 일간지 문학 담당 기자가 이 글에 대해 못마땅하게 평했다고 한다. 인간 보르헤스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시도가 보르헤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여긴 것 같다. 보르헤스 탄생 100주년 학술회의에서는 ‘민족문학가 보르헤스’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다. 민족문학의 진로에 고심하던 청

년 보르헤스의 면모를 다룬 발표였고, 몇 달 후에 학술지에 게재되었다(우석균 1999c). 제목에 대해서 고심이 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민족’이라는 용어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였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청중 일부는 싸한 표정이었고, 비록 학술회의 당일에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지만 몇 달이 지난 후에 ‘부적절’한 용어와 내용에 대해 뒷이야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보르헤스를 아르헨티나 작가로, 따라서 아르헨티나 맥락과 결부시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는 적어도 실비아 몰로이(Sylvia Molloy)의 『보르헤스의 문학 *Las letras de Borges*』(1979)부터 보르헤스 연구의 뚜렷한 흐름의 하나가 되었고(Balderston 1993, 2), 베아트리스 사를로와 다니엘 발더스톤(Daniel Balderston)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몰로이는 뉴욕대학을 한때 아르헨티나 문학 연구의 메카로 만든 학자이고, 사를로도 전성기에 마치 아르헨티나 문학 작품의 정진 감별사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고, 발더스톤은 평생 보르헤스를 연구한 학자이니, 보르헤스에 대한 이들의 새로운 시각은 반향이 컸다. 따라서 이십여 년 전 필자의 글들은 독창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일탈적인 연구 취급받을 일이 전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크게 아쉬웠던 일은 당시 청년 보르헤스의 작품들만 주로 다루었다는 점이었다. 장년기의 보르헤스 문학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후속 연구과제로 미룬 것인데, 거기서 그치고 말았다. 그 아쉬움 때문에 「남부 El Sur」에 대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작품은 1953년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 나시온 *La Nación*』에 발표되고, 1956년 『픽션들』의 중보판이 발간되면서 마련된 2부 ‘기교들(Artificios)’에 추가된 작품이다. 이 2부 서문에서 보르헤스는 이 단편이 “어쩌면 내 가장 훌륭한 단편”(Borges 1974, 483)¹⁾이라고 말한다. 이는 형이상학적 보르헤스에게 열광하는 독자들에게는 과도한 자화자찬일 것이다. 그러나 「남부」가 완성도 높고 대단히 매력적인 단편인 것은 틀림

1) 앞으로 「남부」의 텍스트 인용은 페이지만 표시한다.

없다. 완성도가 높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인공 후안 달만(Juan Dahlmann)의 행보를 둘러싼 현실과 환각의 경계 넘나들기, 예기치 못한 반전, 열린 결말 등 기법적 기여도 크다. 그러나 보르헤스의 개인사, 가문의 역사, 부에노스아이레스 및 아르헨티나의 현실과 역사 등 여러 층위의 해석이 가능하고, 나아가 이 층위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해석 지평이 열린다는 점도 한몫 단단히 한다. 이 작품을 소설로 읽을 수도 있고 “다른 방식”(483)으로도 읽을 수 있으리라는 보르헤스의 발언이나 “아르헨티나 전 역사의 암호”(Alazraki 1983, 130)라고 말하는 알라스라키의 단언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이 글의 II장에서는 보르헤스의 삶과 문학적 전사(前史)가 「남부」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주로 「남부」와 페론주의의 관계를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IV장에서는 프린티어 지대로서의 남부가 아르헨티나 역사와 이 단편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남부」 속의 보르헤스

「남부」의 줄거리는 이렇다. 어느 날 달만은 독일의 동양학자 구스타프 바일(Gustav Weil, 1808-1889)의 『천일야화(千一夜話)』 판본을 손에 넣는다. 얼른 읽고 싶은 마음에 층계를 뛰어 올라가다 어둠 속에서 부딪혀 머리를 다친다. 뜻밖에 상처가 크게 악화되어 입원하고, 의식까지 혼미해진다. 퇴원 후 달만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벗어나 남부에 있는 자기 농장에서 요양할 작정으로 콘스티투시온(Constitución) 역에서 기차를 탄다. 사실 달만의 회복과 남부행이 현실인지 환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달만은 기차 안에서 “내일이면 농장(estancia)에서 잠을 깨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동시에 두 사람인 것 같았다. 가을날 조국의 땅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과 병원에 갇혀 체계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토로하고 있다(527). 게다가 차장이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내리라 하는데도 달만은 이유도 묻지 않고 그 낯설고 외딴 곳에 내린다. 그리고 저녁을 먹기 위해 그 마을의 잡화점(almacén)에 들어

간다. 그곳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 한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페온(peón)들이 시비를 건다. 처음 보는 주인이 다가와 어떻게 알았는지 달만의 이름을 부르며 신경 쓰지 말라 한다. 그러자 오히려 시비를 걸던 사람 중 하나가 다짜고짜 결투를 신청한다. 한쪽 구석에서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던 가우초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만의 발치에 단도를 던져 준다. 달만은 칼을 쓸 줄 모르기에 결투를 받아들이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숙명처럼 결투를 받아들여 칼을 쥐고 벌판으로 나선다. 기차 안에서의 달만의 태도를 볼 때 뜻밖의 결정이다. 그는 여행 중에 읽으려고 『천일야화』를 가지고 열차를 탔다. 그러나 평소 그토록 경이롭다 예찬하던 그 책을 거의 읽지 않고 금방 덮은 바 있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 번두리로 바뀌는 풍경에 시선을 빼앗겼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 자체에 책의 경이로움을 넘어서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죽음으로 귀결될 결투를 선택했으니 반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면서 만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 죽음의 방식을 선택하기를 바라던 기억을 떠올린다. 다시 한번 현실과 환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열린 결말이다.

짧은 단편이건만 「남부」에는 보르헤스의 삶과 문학적 여정이 진하게 녹아 있다. 무엇보다도 달만이 겪은 머리 부상, 입원, 의식의 혼미 등은 보르헤스와 관련된 너무나 유명한 일화이다. 그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든 단편집들인 『픽션들』과 『알레프』가 바로 이 사건의 산물이었다. 보르헤스는 1938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어둠 속에서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가다가 「남부」에서처럼 『천일야화』 때문은 아니었다. 머리를 부딪쳤다. 그리고 상처가 났나 패혈증으로 한 달 동안 생사를 넘나들었다. 회복 과정에서 보르헤스는 지적 능력, 글쓰기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 크게 걱정했고, 그래서 시험 삼아 쓴 단편이 『픽션들』에 수록된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 Pierre Menard, autor del Quijote」(1939)였다. 그때까지 시와 에세이에 주력하고 사실상 소설을 쓰지 않은 보르헤스가²⁾ 느닷

2)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 이전에 단편의 특징을 띤 작품들로는 흔히 「경찰

없이 단편을 쓴 이유가 있었다. 자신의 주 장르인 시나 에세이를 썼다가 글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반면 거의 시도한 적 없는 장르의 글을 쓰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능력 상실의 증거가 아니라고 치부하면 그뿐이라는 생각으로 단편을 썼다(Borges 1999, 109-110).

둘째, 달만의 이동 경로에 보르헤스의 삶, 취향, 문학 여정 등이 담겨 있다. 달만이 움직이는 공간은 보르헤스에게는 추억의 장소들이고 무수한 문학적 영감을 주었다. 달만은 콘스티투스온 역에서 기차를 타는데, 그가 역으로 이동하는 대목에서 “남부는 리바다비아 길(Avenida Rivadavia)을 넘어서면 시작되고, 남부로 들어간다는 것은 “더 오래되고 확고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서술이 등장한다(526). 이 대목에서 말하는 남부는 달만의 목적지인 남부와 동일하지 않다. 전자는 도시 내의 공간이고, 후자는 19세기 미국 팽창기의 텍사스나 서부 같은 프린티어 지대를 가리킨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내의 남부는 보통 ‘바리오 수르(Barrio Sur)’ 혹은 간단히 ‘수르’라고 부른다. 바리오는 ‘동네’ 정도의 뜻으로도 사용되고, 더 넓게는 ‘지구(地區)’ 정도의 뜻이다. 바리오 수르 지구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오랜 두 바리오 중 한 곳인 카테드랄 알 수르(Catedral al Sur)를 대중적으로 바리오 수르 혹은 수르라고 불렀을 뿐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성장하면서 바리오 수르는 더 넓은 지역을 지칭하게 되었다. 보르헤스의 경우는 산 텔모(San Telmo), 몬세랫

전설 Leyenda policial(1927), 「사내들이 싸웠다 Hombres pelearon」(1928), 「변두리의 사내들 Hombres de las orillas」(1933), 「분홍빛 모통이의 남자 Hombre de la esquina rosada」(1935), 「알모타심으로의 접근 El acercamiento a Almotásim」(1935) 등이 거론된다. 「알모타심으로의 접근」은 훗날 실제로 보르헤스의 첫 단편집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 El jardín de senderos que se bifurcan』(1941)에 포함되었다. 또 이 책을 1부 제목으로, 「기교들」을 2부 제목으로 삼아 출간한 「픽션들」에도 수록되었다. 보르헤스 자신은 「분홍빛 모통이의 남자」가 “완성도 있는 내 첫 단편”(Borges 1999, 100)이고, 1933-1934년 사이에 써서 「불한당들의 세계사 Historia universal de la infamia」(1935)에 포함시킨 텍스트들이 “단편작가로서의 내 경력의 진정한 시작”(Borges 1999, 101)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알모타심으로의 접근」을 쓰면서 소심하게 에세이인 양 포장했고(Borges 1999, 103),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 역시 「알모타심으로의 접근」처럼 에세이에서 진정한 단편으로의 이행기에 있는 작품 정도라고(Borges 1999, 110) 말한다.

(Montserrat), 콘스티투스시온, 바라카스(Barracas)를 바리오 수르로 받아들였다(Zito 1998, 199). 보르헤스는 보들레르만큼이나 유명한 산보객(flâneur)이었다. 1921년 유럽에서 귀국했을 때부터 거의 평생을 산보객으로 살았고, 그 오랜 습관이 문학적으로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특히 거리를 “보지 못하게 되면 죽어버릴 것”(“Caminata”, Borges 1974, 43) 같다는 시가 담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열기』를 비롯하여 『정면의 달 *Luna de enfrente*』(1925), 『산 마르틴표 공책 *Cuaderno San Martín*』(1929) 같은 시집들과 전기 내지 에세이로 분류되는 『에바리스토 카리에고 *Evaristo Carriego*』(1930)가 그 산물이다. 그리고 그런 보르헤스가 즐겨 산보하던 곳 중 하나가 바로 바리오 수르였다.³⁾

달만이 향하는 남부 역시 보르헤스의 추억과 관련 있다. 텍스트에는 남부의 농장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향기로운 유칼리나무 냄새가 인상적인 곳으로 묘사하는데(525), 이는 보르헤스의 상상력의 근간이었던 곳 중 하나인 아드로게(Adrogué)를 연상시킨다. 보르헤스 가족이 여름을 보내던 집과 호텔이 있었던 곳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는데, 「남부」의 농장이 위치한 것처럼 거리마다 유칼리나무가 있었다(Borges 1999, 32). 「남부」에서 아드로게 같은 곳보다 더 외딴곳에서 달만이 기차에서 내렸다는 것은 예의 결투가 벌어질 곳이 남부 프런티어 지대, 즉 문명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마저 넘어선

3) 구도심이나 바리오 노르테(Barrio Norte,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북쪽 시가지. 바리오 수르처럼 정식 명칭이 아니라 대중적인 이름이고 노르테로 불리기도 한다) 일부 지역도 보르헤스의 산보 대상 지역이기는 했다. 가령, 일종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찬가처럼 널리 애송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신화적 창건 *La fundación mítica de Buenos Aires*」(1929)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처음 창건된 곳이 자신이 유년기에 살았던 팔레르모(Palermo)였다는 시적 상상력을 발휘한다(Borges 1974, 81). 또 『에바리스토 카리에고』에서도 팔레르모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정수가 담겨 있는 곳으로 예찬한다. 팔레르모는 행정적으로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는 바리오 노르테의 한 구역으로 인식되는 일이 잦았다. 노르테는 수르보다 늦게 생긴 시가지이다. 1871년 황열병이 돌아 산 텔모 등에 거주하던 상류층이 더 한적한 곳을 찾아 이주해 가면서 고급 주택지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다만 보르헤스 유년기의 팔레르모는 소위 점잖은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이 아닌 변두리 중의 변두리여서(Borges 1999, 14) 노르테의 일반적인 정체성에 부합되지 않았다. 훗날 보르헤스도 팔레르모를 노래한다고 쓴 시들이 사실은 수르를 노래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재인용, Zito 1998, 199).

곳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셋째, 결투와 단도는 보르헤스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이다. 가령, 앞서 언급한 「경찰 전설」, 「사내들이 싸웠다」, 「변두리의 사내들」, 「분홍빛 모통이의 남자」들이 이에 해당하고, 심지어 뒤의 세 텍스트는 아예 새로운 작품이기보다 첫 번째 텍스트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개작한 것이다. 이 모티브의 비교적 잦은 출현은 보르헤스가 받은 문학적 영향의 산물이다. 주지하다시피 gaucho 문학은 그 주요 축의 하나이다. 「남부」처럼 『픽션들』의 증보판에 추가된 「끝 El fin」은 호세 에르난데스(José Hernández, 1834-1886)의 서사시 『마르틴 피에로 Martín Fierro』(1부 1872, 2부 1879)의 결말을 고쳐 쓴 단편이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마르틴 피에로」를 능가하는 성공을 거둔 에두아르도 구티에레스(Eduardo Gutiérrez)의 소설 『후안 모레이라 Juan Moreira』(1879-1880)처럼⁴⁾ 크리오요주의 문학이자 도시 gaucho 문학의 영향도 보르헤스에게 영향을 끼쳤다. 후안 모레이라는 1874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로보스(Lobos) 시에서 경찰에게 죽은 칼잡이였다. gaucho 출신으로 흔히 ‘마톤(matón)’이라 불리는 정치 깡패였지만, 구티에레스에 의해 경찰에 맞서는 ‘용기’를 보인 인물로 미화되어 『후안 모레이라』를 비롯한 수많은 아류작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보르헤스는 이 소설을 비롯해 아르헨티나의 도적떼와 무법자들을 다룬 작품들을 쓴 구티에레스의 열렬한 독자였다(Borges 1999, 26-27).⁵⁾ 보르헤스처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표적인 산보객이었으며 도시의 변천에 대해 『부에노스아이레스, 일상생활과 소외』라는 스테디셀러를 쓴 후안 호세 세브렐리는 “보르헤스에서 아를트(Roberto Arlt)에 이르기까지 중산계급 출신 작가들의 특징”이었던 “일종의 ‘악의 낭만주의’”도 작용했다고 본다(후안 호세 세브렐리 2021, 27). 이 지적은 한편으로는 이런 경향의 문학이 급작스런 근대화와 도시화 과정을 겪은 서구 문학에서도 있었던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

4) 『라 파트리아 아르헨티나 La Patria Argentina』의 연재소설이었다.

5) 다만 청년 보르헤스는 크리오요주의 문학의 단순한 계승보다 비판적 혁신을 원했고, 모레이라가 등장하는 아류작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판적이었다(우석균 1999c, 15-16).

을 시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르틴 피에로』처럼 전통적인 gaucho 문학뿐만 아니라 도시 gaucho 문학이 보르헤스의 결투와 단도의 모티브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무튼 보르헤스는 ‘arrabal’, ‘suburbio’, ‘orilla’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 변두리의 칼잡이들인 ‘콤파드리토(compadrito)’들을 빈번하게 등장시켰다. 그런데 이 모티브는 문학적 영향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보르헤스의 성격이나 취향과도 관계가 있다. 보르헤스의 회고에 따르면, 본인의 열등감이 작용했다고 한다. 그는 선조들 중에서 군인이 많다 보니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읽는 사람인 자신이 부끄러웠고, 30세 즈음에야 이런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Borges 1999, 24). 그러나 완전한 극복은 아니고 의기소침해지면 또다시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가끔 있었고, 사나이들의 거친 세계에 대한 동경과 애착은 평생 지속되었다. 감상적인 영화를 보고는 눈물 흘린 적이 없는데 해적이냐 총잡이냐 영화를 보고는 가끔 울었다고 고백하는 (Rodríguez Monegal 1987, 167) 모습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III. 보르헤스의 반페론주의

보르헤스는 「남부」를 쓰기 6주 전쯤인 12월 8일 『라 나시온』지에 「결투 El desafío」(1952)를 발표했다. 그리고 『에바리스토 카리에고』 증보판(1955)에 추가된 「단도 El puñal」(1953)도 「남부」와 비슷한 무렵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Williamson 2007, 358). 결투와 단도의 모티브가 보르헤스의 문학적 여정이나 개인적 취향의 소산이라 그의 문학 세계에서 수시로 되풀이되었다지만 이처럼 유사한 작품을 연달아 쓴 것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1930년대 말부터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 『픽션들』, 『알레프』를 쓰는 동안에는 그 이전과는 달리 아르헨티나를 지시대상으로조차 삼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이 행보가 보르헤스가 보편적 문인이라는 신화의 탄생에 일조했다).

이에 대해 보르헤스 전기 작가 에드윈 윌리엄슨은 적어도 세 가지 계기를 지

적한다. 첫 번째는 그가 당시 마르가리타 게레로와 「가우초 마르틴 피에로 El gaucho Martín Fierro」라는 평론을 같이 쓰고 있었다는 점이다(Williamson 2007, 355). 이 작업을 하는 김에 「남부」를 비롯해 유사한 분위기의 작품들을 자연스럽게 쓰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계기는 이 여인의 이별 통보이다. 그 날 저녁에 보르헤스는 콘스티투시온 역 근처의 다리 위에서 남부행 열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다음날 「마태복음. 25장 30 Mateo. XXV, 30」(1953)이라는 시 속에서 세월과 재능을 낭비하는 자신을 자책했다 한다(Williamson 2007, 356). 보르헤스의 연애사가 제법 많고, 보통 끝이 좋지 못했고, 으레 관련 작품을 썼기 때문에 특별히 염두에 둘 만한 일인가 싶기는 하다. 그러나 「남부」에서 달만이 마치 사내답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기 싫다는 듯 이기지도 못할 결투에 임하는 모습이 이별 이후 보르헤스의 자책과 오버랩되기는 한다.

필자가 제일 중요한 계기로 보는 것은 윌리엄슨이 지적한 세 번째 요소인 페론주의이다(Williamson 2007, 358). 예의 초월적 이미지와 달리 보르헤스는 정치에 아예 무관심하지 않았다. 출판에 이르지 못했고 스스로 원고까지 폐기 해버렸지만, 보르헤스가 아르헨티나 귀국 전에 쓴 두 권의 책은 각각 정치적·문학적 에세이집과 소비에트 혁명을 예찬한 시집이었다(Borges 1999, 59-60). 또 1920년대의 청년 보르헤스는 두 번 대통령을 역임한 이폴리토 이리고엔(Hipólito Yrigoyen, 1852-1933)을 지지하여 급진시민연합(Unión Cívica Radical)의 젊은 지식인들이 참여한 위원회 활동을 잠시 주도하였고, 1930년대에는 보수당에 입당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아나키즘에서 시작하여 보수주의로 귀결되는 광범위한 정치적 스펙트럼은 보르헤스에게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정치적 신념 내지 통찰력이 있었는지 회의하게 만든다. 칠레를 방문하여 피노체트에게 훈장을 받은 일로 노벨문학상을 날렸다는 이야기나(Vázquez 1996, 246) 아르헨티나 군부독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이력도 정치적 소신이나 해안 부재 때문에 빚어진 참사가 아닐까 싶다.⁶⁾

6) 아르헨티나 민주화 이후 추악한 전쟁(la guerra sucia)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소회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보르헤스는 그토록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랐다고 답

그렇지만 보르헤스는 유일하게 페론주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일관된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대한의 개인과 최소한의 국가”(재 인용, Vázquez 1996, 229)라는 보르헤스의 일관된 태도와도 관계가 깊다. 아나 키즘에 경도되어 국가를 불신하다 보니 보르헤스 남매를 제 나이에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교사를 붙일 정도였던 부친(Borges 1999, 30)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배격과 개인의 자유를 소중한 가치로 삼았던 보르헤스에게 대중적 지지와 동원을 금과옥조로 여기던 페론주의는 악몽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의 가족은 페론 정권 때 유일하게 실질적인 정치적 위협을 느꼈다. 보르헤스는 작은 도서관의 일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반페론주의자로 낙인이 찍혀 어느 날 갑자기 양계장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아예 사임했고, 반페론주의 시위에 참여한 모친과 여동생은 잠시지만 각각 가택 연금과 투옥을 겪었다. 그래서 이 시절의 보르헤스는 강연 때마다 반정부적인 견해를 표출했고, 반페론주의자들의 권유와 지지로 회장이 되어 아르헨티나 문인협회를 이끌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으며, 1952년 에비타 사망 후에 협회 사무실에 추모 초상화를 걸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회가 폐쇄되는 일도 겪었다.

정치적 의식이 가장 고양되어 시기를 살았던 만큼, 페론 시대는 보르헤스가 정치적 텍스트를 가장 많이 쓴 시기이기도 하다. 보르헤스의 대표적인 정치시로 많이 거론되는 「추측의 시 Poema conjetural」은 심지어 페론 집권 전인 1943년, 즉 그가 직접적인 수모와 탄압을 겪기 전에 쓴 것이다. 1946년의 페론 집권으로 귀결된 1943년 군사 쿠데타 이전부터 보르헤스는 이미 파시즘의 발호를 우려하고 있어서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추측의 시」를 썼다. 「장성과 책 La muralla y los libros」(1950)은 대표적인 반페론주의 에세이이다. 진시황의 만리장성 축조와 분서갱유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만, ‘장성’은 페론식 민

을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다. 대중의 탄식과 분노를 자아낸 발언이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보르헤스가 시력 상실로 신문을 읽지 못한 지 오래였고, 특히 모친 사망 후의 보르헤스는 TV도 라디오도 없이 오랫동안 독신 생활을 했으며, 고령이 되면서 외출 빈도와 지인들과의 만남도 상당히 감소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 당연했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Zito 1999, 230-231).

족주의, ‘책’은 문화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기 위한 장치였다. 1951년 강연으로 1953년에 글로 발표된 「아르헨티나 작가와 전통 El escritor argentino y la tradición」도 흔히 알려진 것처럼 민족주의보다 세계주의(cosmopolitanism)를 옹호하는 자신의 문학관 설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페론의 민족주의(보르헤스의 시각에서는 국수주의) 문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강연이자 텍스트였다. 페론 시대 종식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발간한 『작가 El hacedor』(1960)에도 「시물라크르 El simulacro」라는 단상에서 페론주의를 조롱하고 있다. 금발 마네킹이 든 마분지 상자를 설치한 뒤, 우중(愚衆)을 상대로 조의금을 받는 상복 차림의 남자가 등장하고, 보르헤스의 시각을 대변하는 화자는 그 음산한 짓거리를 벌인 이를 두고 “자기 자신이 침통한 할아버지 역을 애절하게 연기했던 페론이라도 되는 줄 아나?”(Borges 1974, 789)라며 야유한다. 1952년 에비타의 사망 직후 상황에 대한 야유이다.

「남부」는 이 텍스트들과 비교하면 언뜻 보아 페론주의에 대한 뚜렷한 비판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추측의 시」와 「남부」의 유사한 분위기는 전체주의에 대한 보르헤스의 우려가 반페론주의적 입장으로 귀결된 것으로 볼 여지를 진하게 남긴다. 이 시에는 “1829년 9월 22일 알다오(Aldao) 휘하의 몬토네로들⁷⁾에게 살해당한 프란시스코 라프리다 박사가 죽기 전에 생각하다”(Borges 1974, 867)라는 제사가 붙어 있다. 라프리다(Francisco Narciso de Laprida, 1786-1829)는 보르헤스 외가 쪽 조상으로 1816년에 아르헨티나 독립을 정식으로 재천명한 투쿠만 의회 국회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시에서 라프리다는 전투에서 패하고 도주하면서 이런 상념에 사로잡힌다.

최후의 오후, 총탄이 귀청을 울린다.
먼지를 흩날리며 바람이 휘몰아치고,
기괴한 전투가 낮 동안 전개되는데,
승리가 적의 것이네.
승리하네 야만인들이, gaucho들이 승리하네.

7) los montoneros, 비정규 기마부대.

법과 규범을 공부했던 나,
이 살벌한 지방들의
독립을 선언했던 나
프란시스코 나르시소 데 라프리카가 패하였다네(Borges 1974, 867).

“법과 규범(las leyes y los cánones)을 공부했던 나”와 “야만인들”의 대비는 아르헨티나 맥락에서는 도밍고 F. 사르미엔토(Domingo F. Sarmiento)의 문명과 야만의 대비를 연상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아르헨티나 건국의 주역, 즉 문명적 과업을 성취한 라프리카가 가우초로 지목된 야만인들에게 패하였으니, 그런 연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실제로 「남부」를 쓸 무렵의 보르헤스는 19세기에 철권통치를 한 후안 마누엘 데 로사스(Juan Manuel de Rosas, 1793-1877)가 지배하고 있는 듯한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Williamson 2007, 349). 그래서 사르미엔토와 로사스에 대한 평가도 예전과 달라졌다. 젊은 시절의 보르헤스는 사르미엔토를 국가 현실을 간파하고 유럽화를 지향한 인물로 비판한 반면, 로사스에 대해서는 평온한 무치(無治, quieto desgobierno)를 실천한 인물이라는 낭만적인 정의를 내렸다. 그러나 페론주의를 겪으면서는 페론 ‘독재’의 기원을 로사스에게서 찾고, 사르미엔토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뀌었다(Saona 2002, 141).

「추측의 시」에서 라프리카의 행보와 죽음도 「남부」의 달만과 유사한 점이 있다. 라프리카는 “최후의 변두리 동네들을 지나 남부를 향해”(Borges 1974, 867) 도주한다. 달만처럼 남부 프런티어 지대로 가는 여정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부에서는 라프리카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그 예정된 죽음 앞에서 오히려 그는 “설명할 길 없는/은밀한 환희”를 느끼게 되고 “남아메리카의 내 운명”과 “마침내 조우”(Borges 1974, 867)한 것뿐이라고 덤덤하게 받아들인다. 이 역시 다음과 같은 「남부」의 결말 부분과 유사하다.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달만에게는 희망도 없었지만 두려움도 없었다. 문턱을 넘어가면서, 달만은 병원에 간 첫날밤에 주사를 맞을 때, 이렇듯 넓은 하늘 아래서 칼싸움을 하다 죽을 기회가 있었다면 그것이 해방이고 행복이고 축제였을 텐데 하고 느꼈다. 자신의 죽음을 그때 스스로 선택하거

나 꿈꿀 수 있었다면, 이 죽음이 바로 그가 선택했거나 꿈꾸었을 죽음이라고 느낀 것이다(530).

이런 유사한 분위기 때문에 「추측의 시」와 「남부」, 특히 “남아메리카의 내 운명”을 「남부」의 달만의 운명과 등치시키는 해석이 다수 존재한다(Alazraki 1983, 130-131; Saona 2002, 145; Pellicer 2004, 223). 그렇다면 이 운명은 어떤 운명일까? 라프리카와 달만의 죽음을 각각 환희의 죽음과 꿈꾸던 죽음으로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젊은 시절의 보르헤스는 사르미엔토의 문명/야만의 대립구도를 극복하고자 “야만을 문명화시키는(혹은 문명을 야만화시키는)”(Olea Franco 1993, 108) 노력을 경주했다.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칼잡이 콤파드리토들의 결기(coraje)에 찬사를 보낸 것도 이 기획의 일부였다. 그러나 “법과 규범을 공부했던 나”가 아니라 “야만인들이, 가우초들이 승리”한 과거의 역사가 페론 정권하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장년의 보르헤스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달만의 결투 수용은 페론주의에 대한 보르헤스의 끓어오르는 분노,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경을 투영한 결말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예정된 죽음을 “해방이고 행복이고 축제”로, “선택했거나 꿈꾸었을 죽음”으로 미화시키는 것은 일종의 정신승리에 불과하다.

IV. 신화적 공간 남부 프런티어

달만의 남부행은 아르헨티나인이 아니라면 그 깊은 의미를 포착하기 힘든 구성요소이다. 「남부」는 1871년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친조부 요하네스 달만과 크리오요 외조부 프란시스코 플로레스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 친조부는 게르만인 개신교 목사였고, 외조부는 프런티어 지대에서 사망한 군인이었다. 화자는 후안 달만이 “그의 두 혈통의 불화 속에서”(525) 게르만인이었던 친조부의 낭만적 혈통의 충동으로 낭만적 죽음을 선택한 것 아닐까 하고 추측한다. 「남부」와 관련해서 많이 인용되는 소설가 리카르도 피글리아(Ricardo Piglia)의 글은 이 “두 혈통의 불화”에서 출발해서 사르미엔토의 문명/야만의 대립구도

를 소환한다. 친조부와 외조부가 지식/무지, 유럽인/크리오요, 문/무 등의 대립구도를 형성한다고 역설한다는 것이다(Piglia 1979, 3-4). 그러나 이 해석은 정교하지 못하다. 야만의 희생자가 된 것은 친조부가 아니라 외조부였기 때문이다. 작중에서 프란시스코 플로레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프런티어 지대”(525)에서 카트리엘(Catriel) 휘하 인디오들의 창에 찔려 죽은 것으로 서술된다. 보르헤스가 아르헨티나 역사나 가문의 역사를 문학적으로 과감하게 변조하는 것이 보통인지라, 작중의 플로레스의 사망 시점을 명확하게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보르헤스가 아르헨티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라면 1875년과 본격적인 사막 정복(Conquista del Desierto, 1878-1885) 초기 사이에 일어난 죽음일 것이다.



사막 정복과 아르헨티나의 영토 팽창

‘사막 정복’은 선주민에 대한 미국식 토벌 전쟁이었다. 마푸체인으로 대대로 부족장의 지위를 유지하던 카트리엘 가문은 적어도 19세기에는 크리오요들에게 내내 협력적이었다. 그러다가 1875년에 갈등을 빚으며 전쟁이 발발했고, 마지막 부족장 후안 호세 카트리엘이 1878년 말에 포로로 잡힌다(Literas 2016). 사막 정복은 육류와 밀에 대한 유럽 수요가 크게 팽창했을 때 벌어진 전쟁으로, 광대한 영토의 획득으로 아르헨티나 농목축업의 비약적 팽창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초기에 괄목할 만한 전공을 세운 홀리오 A. 로카(1843-1914)⁸⁾는 이를 바탕으로 두 차례 대통령을 역임했고(1880-1886, 1898-1904), 아르헨

8) 전체 이름은 ‘Julio Argentino Roca’인데 오늘날의 선주민들은 ‘Julio Asesino Roca’, 즉 ‘살인자 홀리오 로카’라고 부르기도 한다.

티나 전성기의 주역인 소위 1880세대의 중심인물이 되었다(벤자민 킨·키스 헤인즈 2014, 619).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사막 전쟁 이전의 아르헨티나 국경선은 서쪽과 남쪽으로는 현재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경계 인근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나마 이 지도는 이미 1878년에 복속된 카트리엘이 이끄는 부족의 영토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그들은 오늘날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경계 서부와 남부에서 그리 멀리 않은 곳까지 그들의 영토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에게 서쪽과 남쪽은 도시만 벗어나면 얼마 안 가 프런티어 지대였다.

지도를 보면 1878년 본격적인 사막 정복의 결과 특히 남쪽 영토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남부는 상대적으로 더 미개척지, 더 야만의 땅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1879년에 획득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서쪽 영토가 습한 팜파로 초지인 반면, 1881년에 획득한 남쪽 영토는 대체로 건조한 팜파로 농업과 목축업을 위해서는 좋은 조건이 아니었던 점도 그런 인식을 강화했다.

다만 남부에 대한 특별한 인식의 출현이 사막 전쟁 당시에서 유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18세기와 19세기의 크리오요들은 선주민들의 영토를 남쪽과 서쪽을 구분하지 않고, ‘내륙 대지’(Tierra Adentro)라고 통칭했기 때문이다(Ramiro Podetti 2008-2009, 91).

그런데 바로 보르헤스 같은 인물이 ‘남부’라는 프런티어 지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고, 단편 「남부」가 그 사례이다. 그렇지만 보르헤스가 남부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현실적 의미 부여가 아니라 신화적 의미 부여였다. 1921년 귀국했을 때 보르헤스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매료되었다. 그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귀환(regreso)한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재발견(redescubrimiento)했다고 토로할 정도였다(Borges 1999, 63). 귀국 직후 그의 주요 문학적 목표 중 하나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문학적으로 불멸의 도시로 만드는 일이었던 것은 바로 그런 열광 때문이었다. 팜파는 문학적으로 승화되었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Borges 1994, 31) 속에서 초기 시집과 에

세이 시집들을 통해 이 도시의 문학적 형상화에 매진했고, 카를로스 푸엔테스가 그를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위대하고 완전한 도시 소설가”(Fuentes 1969, 25)라고 정의할 정도로 단편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계속했다.

그렇다면 도시 작가이면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동시에 남부 프런티어 지대를 신화화시켰다는 것일까? 도시 변두리 지역에 대한 그의 애착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보르헤스가 근대적 도시로 탈바꿈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발전상에는 별 관심이 없고, 팔레르모나 바리오 수르 같은 변두리나 저층 주택지대와 거리들을 예찬한 이유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열기』의 첫 번째 시 『거리 Las calles』에 담겨 있다. 변두리의 낮은 집들이 “하늘과 별판이 자아낸/깊은 모양 새로 사라지는”(Borges 1974, 17) 장엄한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즉 보르헤스는 도시적 작가이되 도시와 팜파가 만나는 장엄한 풍경을 더 선호한 것이다. 사를로가 그를 도시와 팜파가 만나는 공간인 ‘변두리의 작가’로 정의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Sarlo 1995). 그 장엄한 풍경은 유럽 도시와 차별화된 부에노스아이레스만의 풍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신화적 도시로 만들 수 있었다. 카프카가 프라하를, 조이스가 더블린을, 페소아가 리스본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신화적인 도시로 만들었다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보르헤스에 의해 신화적인 도시가 된 것이다(Zito 1999, 23).

「남부」는 그 신화의 범위를 부에노스아이레스 변두리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인들에게 오랫동안 미개척지 내지 야만의 땅으로 인식되던 남부 프런티어 지대로 확장시킨다. 달만은 기차를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빠져나가면서 “도시가 변두리들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광경”(527)을 보고 경이로운 책인 『천일야화』를 읽다가 눈을 떴다. 여기까지는 ‘변두리의 작가’로서의 보르헤스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계속 여행하면서 “남부로 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과거로 가는 것”(528) 같다고 말한다. 그저 지리적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쪽으로 가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세기의 남부 프런티어 지대를 여행하는 듯한 경이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경험은 계속된다. 잡화점에서 그에게 단도를 던져주는 노인은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난 인물”(528)이고, “이제는 오직

남부에만 남아 있는 가우초”(528)이며, “남부의 암호”(529) 코드를 간직한 인물이다. 앞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내부의 남부, 즉 리바다비아 길 너머의 바리오 수르와 달만이 기차를 타고 도달하는 남부가 동일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신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특징을 띠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과거로의 여행이라는 신화적 여정의 의미는 그다지 달가운 것이 아니다. 19세기의 프런티어 지대로 가는 여행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귀환은 문명과 야만이 정면으로 충돌하던 시대로 간다는 의미이고, 그 결말은 달만의 이길 수 없는 결투처럼 파국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V. 나가면서

보르헤스를 보편적 작가로, 시대와 속세를 초월한 작가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그런 시각은 환상일 뿐이다. 한 인간이 국가적, 시대적, 현실적 맥락에서 완전히 유리되어 살 수 없다는 것을 다들 알면서도 보르헤스에게 그런 굴레를 씌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남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르헤스의 삶도 진하게 배어 있는 단편일 뿐만 아니라, 가우초 문학이나 세브렐리가 말하는 악의 낭만주의 문학처럼 아르헨티나의 예전 시대 혹은 당대의 문학과 상호텍스트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남부」는 정치, 역사, 지성사의 관점에서도 아르헨티나 맥락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보통 비정치적인 작가, 정치가 문학에 개입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 작가로 유명한 보르헤스이지만 페론주의에 대해서만은 일관되게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다. 그래서 페론 집권기의 작품들 중에는 이례적으로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가 명시적으로 담긴 텍스트들이 많았다. 「남부」의 경우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바는 별로 없지만, 이 단편을 전후해서 쓴 텍스트, 특히 「추측의 시」 같은 작품의 내용상 페론주의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페론주의에 대한 보르헤스의 절망이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는 로사스와 사르미엔토에 대한 짧은 시절의 평가가 「남부」를 쓴 무렵에 바뀐 것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아르헨티

나 지성사의 상수인 ‘문명과 야만’의 대립구도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었다. ‘야만의 문명화와 문명의 야만화’라는 이중적 작업을 통해 그 구도를 극복하려던 청년 보르헤스의 포부는 적어도 「남부」에서는 실종되었다. 페론주의라는 눈앞의 ‘야만’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남부」의 또 다른 매력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변두리의 신화화를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문학적으로 불멸의 도시로 만든 보르헤스가 이 단편을 통해 신화적 공간을 남부 프런티어 지대까지 확장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신화화 작업 역시 페론주의의 그늘이 진하게 배어 있다. 주인공 달만의 남부행은 과거로 가는 여행이고, 결국 문명과 야만이 정면으로 충돌한 19세기로 가는 여행이었으며, 문명의 산물인 달만에게 그 시간여행은 이기지도 못할 결투에 노출된 파국의 여행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벤자민 킨·키스 헤인즈(2014),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상권, 김원중·이성훈 옮김, 그린비.
- 우석균(1999a),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열정: 보르헤스와 근대성의 경험」, 서어서문연구, No. 14, pp. 725-741.
- _____(1999b), 「흑백 사진 속에 갇힌 보르헤스의 천연색 욕망」, 세계의 문학, No. 93, pp. 224-336.
- _____(1999c), 「민족문학가 보르헤스」,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No. 10, pp. 1-29.
- 후안 호세 세브렐리(2021), 『부에노스아이레스, 일상생활과 소외/위기의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영실·우석균 옮김, 그린비.
- Alazraki, Jaime(1983), *La prosa narrativa de Jorge Luis Borges*, 3a ed., Madrid: Editorial Gredos.
- Balderston, Daniel(1993), *Out of Context: Historical Reference and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Borge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Borges, Jorge Luis(1974), *Obras completas 1923-1972*, Buenos Aires: Emecé Editores.
- _____(1993), *El tamaño de mi esperanza*, Buenos Aires: Seix Barral.
- _____(1994), “Después de las imágenes,” in Jorge Luis Borges, *Inquisiciones*,

- Buenos Aires: Seix Barral, pp. 29-32.
- (1999), *Autobiografía 1899-1970*, trad. de Marcial Souto y Norman Thomas di Giovanni, Buenos Aires: El Ateneo.
- Fuentes, Carlos(1969), *La nueva novela hispanoamericana*, México: Editorial Joaquín Mortiz.
- Literas, Luciano(2016), “¿De qué hablamos cuando hablamos de tribu de “indios amigos”? Política, militarización y parentesco en la tribu de Tripailaf (Pampa y nor-Patagonia, décadas 1860-1880),” <https://doi.org/10.4000/corpusarchivos.1639>.
- Olea Franco, Rafael(1993), *El otro Borges. El primer Borges*, México, D. F.: El Colegio de México/Fondo de Cultura Económica.
- Pellicer, Rosa(2004), “Borges y el viaje al sur,” pp. 207-227, https://doi.org/10.1163/9789004488632_018.
- Piglia, Ricardo(1979), “Ideología y ficción en Borges,” *Punto de Vista*, No. 5, pp. 3-6.
- Ramiro Podetti, J.(2008-2009), “Civilización, barbarie y frontera en Jorge Luis Borges,” *Humanidades*, Año VIII–IX, No. 1, pp. 87-102.
- Rodríguez Monegal, Emir(1987), *Borges: una biografía literaria*, México, D. 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Saona, Margarita(2002), “Borges, “El Sur” y la nación imaginada,” *Inti*, No. 55-56, pp. 139-148.
- Sarlo, Beatriz(1995), *Borges, un escritor en las orillas*, Buenos Aires: Ariel.
- Vázquez, María Esther(1996), *Borges: Esplendor y derrota*, Barcelona: Tusquets Editores.
- Williamson, Edwin(2007), *Borges. Una vida*, Barcelona: Seix Barral.
- Zito, Carlos Alberto(1998), *El Buenos Aires de Borges*, Buenos Aires: Aguilar.

우석균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wsk65@snu.ac.kr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28일
심사완료일: 2021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24일

The South and Borges' Perception Regarding the Reality of Argentina

Suk-Kyun Woo

Seoul National University

Woo, Suk-Kyun(2021), "The South and Borges' Perception Regarding the Reality of Argentina,"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2(3), 101-121.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a short story called "The South" with the aim of proving that Jorge Luis Borges, its author, is not a transcendental and universal writer, but a writer who has an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Argentina's reality. The reason for choosing this short story is that Borges' individual life and literary itinerary are not only deeply integrated in the text, but it also provides a variety of complex interpretations regarding Argentina's history, politics, geographic imagination and intellectual history. This article is composed of three parts. Chapter II deals with how Borges' life and literary antecedents are projected into "The South"; Chapter III traces main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short story and Peronism; and Chapter IV analyzes what the South, as a frontier, means to the Argentina's history and to this work. The most important context of "The South" is Borges' anger and despair against Peronism. These emotions were so intense that at the time, Borges even changed his perspective on Domingo F. Sarmiento and Juan Manuel de Rosas. In "The South", Juan Dahlmann, the main character, is engaged in a duel even though he knows that he is unable to win. This implies the defeat of civilization against barbarism. This short story has the appeal of extending the mythical embodiments of the outskirts or southern regions of Buenos Aires to the southern frontier areas, but traveling to the past, a key device for mythicizing, only serves to confirm the presence of barbarism in the frontier region in the 19th century.

Key words Jorge Luis Borges, "The South", Argentina, Peronism, Frontier